

광주 청년정책 원스톱 지원 ‘체험형 청정팍스’ 인기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 홍보행사 개최 정책 안내 1:1 상담·흥미 요소 결합 콘텐츠 운영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센터장 조유근, 광주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정책 홍보 행사 ‘청정팍스(청년정책 팝업스토어)’를 열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청정팍스는 매일 마지막 주 상무센터에서 운영되는 체험형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고용정책과 지원제도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보 부스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청년 맞춤형 정책 안내를 중심으로 1:1 상담이 진행됐으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흥미 요소를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됐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 방향을 점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등 주요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정책 홍보 부스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는 최근 청년정책 홍보 행사 ‘청정팍스’를 개최했다.

운영과 함께 콘텐츠 활용이 병행되며 현장감 있는 홍보가 이뤄졌고, 행사 종료 이후에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정책

홍보 방식 개선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상무센터는 청정팍스를 비롯해 취업·

진로·심리·일상 회복을 주제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상당부터 정책 연계, 역량 강화,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 예방과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유근 상무센터장은 “청정팍스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험형 정책 홍보를 강화해 청년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협력해 만 15~39세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정예림씨 “지역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

사회 진출 후 ‘장학금 선순환’ 기부실천 귀감 함평인재양성기금 장학생들에 100만원 기탁

함평군의 인재양성기금 수혜를 받은 장학생이 취업 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장학금을 기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최근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출신인 정예림씨(23)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씨는 기부 배경에 대해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금을 학기 중 총 7회를 지원받아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취업 성공 이후 ‘지역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는 뜻에서 후배들을 위해 인재양성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인재

양성기금 장학사업의 수혜자가 다시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여건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 최초 대학생 등록금 실납부액’ 지원, 소득여건에 따른 ‘생활비생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성적우수, 복직장학생 50만원 지원, 인원 제한 없이 특기자 장학금 선발 등 인재양성기금 관련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5507명에게 54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



최근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출신인 정예림씨(23)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제공=함평군청

해 왔다. 함평군 관계자는 “정예림씨의 기탁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인재가 다시 지역을 위해 기여하는 매우 뜻깊은 사례다”며

“앞으로도 인재양성기금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근로자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도시공사, 근로자 건강 챙기기 앞장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협약·근골격계 질환·상담 지원

광주도시공사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최근 공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채태희)와 ‘근로자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의 보건 전문성과 안전경영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 상담(직업트라우마센터 연계),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 자세 개선 지도, 혈압·체성분 등 건강측정 및 위험 요인 관리, 산재 사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업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단순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전문 보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질병 예방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한 1등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적십자 영상서포터즈봉사회, 온기 나눔 실천

자발적 모금 참여·381만원 기부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등 나눔 실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영상서포터즈봉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회는 광주 봉사관 무료급식소를 찾아 성금 381만원을 기부하고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봉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해 음악 공연을 통한 정서 지원과 함께 배식, 급식실 정리, 환경 정비 등 전 과정에 힘을 보탰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직접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서포터즈봉사회는 평소 영상 제작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활동으로 현장 중심의 나눔 실천까지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도성 봉사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상서포터즈봉사회는 광주지역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영상서포터즈봉사회가 광주 봉사관 무료급식소를 찾아 성금 381만원을 기부하고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제공=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드론운용단 소속 대원들이 중심이 돼 2023년 결성된 단체로, 다양한 봉사나

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담양군 대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행보조기(실버카) 5대와 지팡이 31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담양군청

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수단 ‘실버카’ 달린다

담양 대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행보조기 5대 전달

담양군 대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태수)는 최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행보조기(실버카) 5대와 지팡이 31개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 특화사업 중 하나로, 관내 저소득 가구 중 퇴행성 질환이나 사고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집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소통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수요에 기반한 체험형·생활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곡성읍 시가지 ‘옹기종기 마음정원 투어’ 운영 골목 걷고 이야기 쌓는 ‘옹기종기 친구들’ 첫걸음

곡성군은 최근 곡성읍 시가지 일원에서 ‘옹기종기 마음정원 투어’ 2차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 1차 전문가 투어를 통해 코스 구성과 콘텐츠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에 마친 데 이어, 향후 투어를 직접 운영하게 될 ‘옹기종기 친구들’이 참여하는 실운영자 중심 점검 단계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2차 시범운영은 단순한 사업 프로그램 점검을 넘어, 실제 운영을 전제로 한 동선 점검과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곡성러운지 옹기종

기를 거점으로 생활형 로컬투어 콘텐츠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투어는 ‘옹기종기 친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예비 운영자의 입장에서 코스를 직접 체험하며 전반적인 운영 요소를 점검했다. 투어는 낭만가옥 담골에서 시작해 사업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한 뒤, 학정천과 감성충전길을 따라 도심 산책 코스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골목과 생활 공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방문객에게 전달할 콘텐츠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은 옹



최근 곡성읍 시가지에서 추진된 ‘옹기종기 마음정원 투어’ 2차 시범운영 현장. 사진제공=곡성군청

기종기 친구들이 직접 참여해 투어를 경험하고 운영 관점을 체득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코스를 보완하고 곡성러운지를 거점으로 한 주민 주도형 로컬투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옹기종기 마음정원 투어’는 골목

과 정원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정원’, 지역 상권과 일터를 연결하는 ‘일의 정원’, 창작 공간과 예술 활동을 잇는 ‘창작의 정원’ 등 세 가지 콘셉트로 구성되며, 앞으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